

독한 향신료처럼 '식' 과 '성' 을 넘나드는 욕망의 실루엣

피터 그리너웨이의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김경욱 | 소설가

먹는 도둑이 자기증식적인 욕망이라면 읽는 정부는
간접화된 욕망이다. 정부는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도둑 아내의 육체를 읽어내려 간다. 그러나 도둑에게
발각된 정부는 찢겨진 책으로 기도가 막히는 수난을 겪으며
희생당한다. 정부는 몸까지도 읽어내려 가지만
도둑은 책마저도 먹어치울 것을 강요한다.

나는 음식이 나오는 영화가 좋다. <음식남녀>나
<그린 파파야 향기> 같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
음이 편안해진다. 잘게 썰어지는 그린 파파야 열
매의 향기로운 이미지는 혀를 쓰다듬고 식도를
미끄러져 저 깊은 욕망의 발가락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욕망이다. 개체보존의 욕구 저 너머에 도
사린 욕망, 인간의 욕망. 음식이 나오는 영화인데
도 불구하고 그 긴 제목만큼이나 관객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영화가 바로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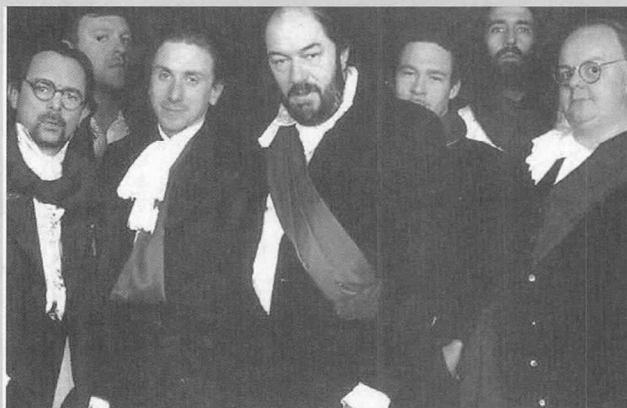
'먹는' 도둑과 '읽는' 정부의 욕망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 문법을 시도하는 영국 출
신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의 1989년작인 이 영화
는 인간의 욕망을 극단까지 벌거벗긴다. 영화는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뉜다. 레스토랑, 화장실, 주
방 그리고 서고(書庫). 색채의 강렬한 대비로 나
뉘진 공간을 넘나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욕망
이다. 벌거벗은 인간의 욕망은 식당에서 화장실
로, 화장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서고로 끊임
없이 부유한다. 독하고 자극적인 향신료처럼 흘
러다니는 욕망의 실루엣을 따라가다 보면 반복
적으로 교체되는 공간과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강
렬한 색채와 조우하게 된다.

레스토랑은 도둑의 공간이며 폭주하는 욕망

의 야만성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도둑은 고대 제정 로마의 폭군처럼 끊임없이 음
식을 탐하고 자신의 아내를 학대한다. 대상화되
지 않는 욕망은 무한대로 자기증식을 하며 그 자
기증식의 과정은 폭력이라는 거칠고 야만스러운
규율로 지탱될 뿐이다. 가치합리성이 아닌 목적
합리성,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지배되며
소비의 창출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절대명제를
향해 질주하는 현대 소비사회처럼.

도둑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는 레스토랑에서
눈이 맞아(이 영화처럼 이 표현이 적절한 경우
가 또 있을까?) 화장실에서 격정적인 애정행각
을 시작한다. 정부는 식사를 하면서도 책을 읽는
지식인이다. '먹는' 도둑과 '읽는' 정부. 먹는 도
둑이 자기증식적인 욕망이라면 읽는 정부는 간
접화된 욕망이다. 도둑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 이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인 접촉은 마치 책을 읽는
행위처럼 보인다. 정부는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도둑 아내의 육체를 읽어내려 간다. 책갈피를 넘
기듯 입술과 가슴과 허벅지를 애무한다. 아니, 입
술과 가슴과 허벅지를 읽어내려간다. 책(몸)읽
기를 통해 욕망은 간접화 혹은 대상화되며 바로
그 순간 책은 욕망이라는 폭주기관차로부터 탈
출할 수 있는 비상구로 열리게 된다.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부패한 생선처럼 욕망에서는 악취가



이 영화에서
'책' 과 '요리' 는
식당에서 화장실로,
부엌에서 서고로
끊임없이 부유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

풍기지만 시간이 흘러도 책은 변함없는 모습으
로 그 자리에 존재한다.

화장실과 부엌을 오가며 정사를 벌이는 도둑
의 아내와 그녀의 정부는 그들의 의도를 눈치챈
도둑의 보복을 피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인 서고로 피신한다. 도둑은 절대로 책 같은 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서고는 무덤처럼 편안한 곳이다. 그러나 도둑에
게 발각된 정부는 찢겨진 책으로 기도가 막히는
수난을 겪으며 희생당한다. 정부는 몸까지도 읽
어내려 가지만 도둑은 책마저도 먹어치울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단에 올려진 희생양
처럼 누워 있다. 물론 시체가 된 채. 그러나 정부
는 가장 성스러우면서 열기적인 요리가 되어 부
활한다. 서고는 제의적 희생의 공간이면서 부활
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제의적 희생의 공간이자 부활의 공간인 서고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는
어쨌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다. 독해
를 교란시키는, 중층적으로 직조된 의미들의 계
열체, 그 알레고리적 구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영국 지식인 사회에 잠재된, 보수
적인 대처리즘에 대한 반감이라는 역사적 문맥
이 개입되더라도 이 불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
는다.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X등급을 받았다는
풍문도 이 '마음 불편함'의 전면적인 근거는 아
닐 것이다. 그런데 그 불편해하는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인간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책
을 통해서.” ●